

# 성격은 달라도 “재밌는 공연” 10년째 의기투합



2 피아니스트 이상록·소프라노 유형민



피아니스트 이상록(뒤)씨와 소프라노 유형민씨는 음악사에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함께 공연을 할 때면 불타는 사랑을 나누는 연인처럼 보인다.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면 가끔은 티격태격도 하는 사이 좋은 오누이다. 피아니스트 이상록(50), 소프라노 유형민(45)씨가 음악적 동반자로 함께 걸어온 게 10년 세월. 이제는 속내까지도 다 털어놓는 가족같은 관계다.

인터뷰를 약속한 날도 두 사람은 막 공연을 하고 온 참이었다. 5·18문화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신 91주년 기념 문화제. 두 사람은 이날 ‘새노아’, ‘불날은 간다’에 이어 고은 시인의 추모시에 멜로디를 부친 ‘당신은 우리입니다’를 연주했다.

유씨는 전남대를 거쳐 미국 예리조나 대학, 워싱턴 대학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이씨는 조선대 출신으로 러시아 국립음악원에서 수학했다. 동문 중심으로 움직이는 음악계에서 두 사람은 별 다른 교류 없이 인사 정도만 하고 지냈다.

## 2005년 리 음악 師弟 인연 ‘미친 사랑의 노래’ 등 호흡

## 1인 오페라·모노 음악극 등 항상 새로운 무대 고민하죠

인연의 시작은 지난 2005년. 유씨가 이씨에게 러시아 음악을 배우면서 부터다. 이씨는 무섭고 까다로운 선생이었다.

“오빠가 주로 선생님들과 작업을 하고 호흡을 해왔던 터라 선생님들과 동급으로 보였어요. 무서운 존재였죠. 속제로 내 주는 곡들도 정말 무시무시한 곡들이었어요. 러시아어에 대한 압박감도 컸구요. 힘들었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하던 시절이었습시다.”

이씨는 지난 2001년 유씨가 공연하던 오페라 무대를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공연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거나 아주 뛰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상적이었어요.(웃음) 아주 화려한데 또 그 안에 다른 내면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함께 공부를 하면서 아주 촉기 있고, 영민한 음악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7년 유씨의 독창회 ‘보헤미안 랩소디’를 통해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다.

“피아니스트 역시 좋은 성악가와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죠. 보통 성악가들이 쓰여진 악보에만 익숙한 경우가 많은데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연주자를 만나고 싶었죠. 형민이가 딱 그런 경우였어요. 피아니스트가 객관성과 타당성 있는 요구를 할 때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가수가 필요하죠.”

그런 테크닉이 가능한 사람과의 작업은 즐겁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장 인상깊게 꼽은 공연은 ‘미친 사랑의 노래’. 노래하는 유형민, 인간 유형민의 모습을 모두 보여준 무대였다. 언젠가 꼭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연주회이기도 하다.

“피아니스트와 성악가로서 뿐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 서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되면서 공연 주제를 잡고, 그에 맞는 선곡을 하는 게 훨씬 풍부해 졌죠. 당시 ‘되돌아보다’부터 ‘그리고 다시 사랑하다’까지 10개 세션으로 나누어 노래했는데 참 좋았던 무대였어요. 2011년 마지막 날 진행했던 ‘마이 퍼니 발레타인’도 기억에 남습니다.”(유형민)

이씨는 유씨의 노래 중에서도 “쿠르드 바일이나 프랑크 뵐랑의 곡처럼 사랑에 들뜬 사람의 노래, 본능을 자극하는 곡들을 부르면서 가슴이 무너진다”고 했다.

이씨의 연주에 대해 유씨는 “오빠는 드뷔시나 사티 등 후기 낭만에 강점이 있다”며 “어떤 평론가가 드뷔시의 ‘달빛’을 연주하는 걸 보고 관객들의 숨까지 켜트를 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두 사람은 정식 공연장 뿐 아니라 다양한 무대에 서며 함께 호흡을 맞춰왔다. 상무지구의 작은 레스토랑에서도, 클래식 음악감상실 다락의 작은 홀에서도 공연하고, 무등산 풍경소리 야외무대에도 함께 했다.

두 사람의 성격은 정반대다. 이씨가 1초의 오차도 없는 사람인 반면, 유씨는 덩방대는 스타일이다. 무대 준비 방식도 다르다. 이씨는 45일전에 악보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어두는 스타일이고, 유씨는 준비도 리허설도 대충대충 하지만 순간 집중력만큼은 뛰어나다. 공연 욕심이 많은 것, 무엇보다 ‘재밌는 공연’을 하자는 건 두 사람이 항상 염두에 두는 부분이다. 유씨는 “오늘 공연이 끝나면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공연할까, 뭘 할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음악사에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만들고 싶어요. 기존 틀에 박힌 음악회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만한 에너지가 부족해요. 카바레 송을 기반으로 모노 음악극을 하든지, 1인 오페라 형식의 공연을 해볼 수도 있겠죠. 새로운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음악을 향한 시선, 세상을 보는 것, 나이 드는 모습까지 함께 지켜보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왔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공연을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이상록)

두 사람은 음반 작업도 준비중이다. 라이브를 좋아해서 따로 녹음실에서 작업하지는 않고 올해 열릴 독창회 실황을 바탕으로 음반을 만들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공재 윤두서’전 다녀 오셨어요?

관람객 10만명 돌파...18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오는 18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에서 열리는 기획특별전 ‘공재 윤두서’가 10만 관람객을 돌파했다.

국립광주박물관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모두 10만4889명의 관람객들이 ‘공재 윤두서’전을 관람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12년 12만1673명이 다녀가는 등 큰 관심을 받았던 기획특별전 ‘외규장각 의궤’(2012년 4월 24일~6월24일) 이후 지역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을 모으고 있는 전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남은 기간 ‘외규장각 의궤’전 보다 많은 관람객이 다녀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내해 10월21일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는 조선 후기 회화사에 큰 업적을 남긴 공재 윤두서 일가의 그림과 서책, 인장 등 200여점의 작품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전시로 국보 제240호 ‘윤두서 자화상’과 보물 제481호 ‘가전보화’(家傳寶繪), ‘미인도’ 등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윤두서의 가계와 생애’, ‘윤두서의 서화세계’, ‘윤덕희·윤용의 서화’, ‘윤두서 일가의 회화가 후대에 미치는 영향’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2-570-70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자화상’

## 전윤철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 내일 취임

전윤철 신임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이 13일 취임식을 갖는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13일 오전 10시 광주비엔날레 거시기술에서 전윤철 제 12대 광주비엔날레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윤장현 광주 시장,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문화예술계 인사 등 각계각층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취임식은 오전 9시40분 현악 4중주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전윤철 이사장 취임사, 윤장현 광주시장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된다.

김시원장(제 19·20대)과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를 지낸 전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광주비엔날레 이사회를 거쳐 선임됐다. 1966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재경·경제·감사 행정의 전문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제5기 문화관광탐험대 모집

광주문화재단이 광주의 숨은 문화 명소를 발굴하는 제5기 문화관광탐험대를 모집한다.

문화관광탐험대는 시민 20명 정도로 구성된 순수 자원 활동가 단체로 광주의 명인·명소·명품 등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결과물로 스토리텔링 관광안내책자를 발간한다. 지난 2011년부터 5년째 운영하고 있다.

지난 제4기 탐험대 20명은 매주 2~3회 광주의 숨은 명소 50여 곳을 직접 찾아다녔다. 또 1박 2일 탐방 코스 제안 등이 담긴 250쪽 분량의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전문록Ⅳ’을 발행했다.

이번 탐험대는 주중, 주말 팀으로 나눠 활동한다. 현장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담당, 탐험 활동장소를 섭외하고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홍보담당 등으로 활동영역을 나눠 탐험대 운영의 전문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누구나 나이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고 비슷한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대한다. 지원서는 12일부터 2월 8일까지 접수하고, 2월 25일 최종 20명을 선발한다. 문의 062-670-746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15년 새해에도, 고객님 한분 한분을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모시는 **금수장 호텔 아리랑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www.geumsoojang.com

신년 메뉴 **떡국**개시 정성을 가득담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0가지 외원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너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맞춤형 출장도시락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2014년 12월 15일 ~ 2015년 3월 15일 **제주도여행 폭탄세일**  
나는 제주여행을 (2박3일) ₩109,000원에 갈다~!

선박(씨스타크루즈) 08:50 목포항출발 ₩109,000원 ~ 항공(아시아나) 15:40 광주공항출발 ₩189,000원 ~

1일째	선박 08:00 목포항집결 13:30 제주항도착직원미팅 항공 14:30 광주공항집결 16:20 제주공항도착직원미팅	· 수목원테마파크-아이스뮤지엄-트릭아트 · HOTEL : 일반호텔(4~6인실)	중식 : 자유식 석식 : 호텔식
2일째	· 조식후-아침이 이쁜솔잎바다~외돌개 올레6,7코스트래킹 · 석부적테마농원-감귤따기체험~중문포구~별내천전망대, 천연난대림지대 · 중식후-카멜리아 힐-겨울의꽃 동백동산	· 서커스월드or코끼리쇼(현지직방) · HOTEL : 일반호텔(4~6인실)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3일째	· 조식후-민공예품전시장~조랑말체험 · 제주성읍민속보전마을체험-중식-광치기해안-제주의오름을 한눈에볼수있는 드라이브상산간도로 · 예코랜드-기차타고곳자왓(자연원시림)숲지대관광 · 농,수산물직매장 - 해녀촌	· 동굴리안 마상쇼(현지직방) · 드라이브상산간도로	조식 : 호텔식 중식 : 토종돼지 불고기정식 석식 : 자유식

모집사항 : 선박여행공과, 현지차량료, 일일내외입장료, 숙박비, 여행자보험  
 무료행사료 : 음산(현지직방), 기사, 가이드료 1인 ₩10,000원  
 \* 광주출발-목포-광주도착(20명이상선정)버스 1인 ₩20,000원

※ 참가일정 문 현시정정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상원은주중매기입니다! ※ 2인실 : 1박당 30,000원 추가 ※ 산외회 별도문의

※ 문의처 | 해외, 국내, 섬투어 전문여행사 **황제관광여행사** 광주광역시 북구 효산로 5 ☎ 062)267-8580 ★ 담당자 | 문병구 H.P 010-3999-3226 FAX 062-267-8581